

홍경태(부산상고 후배) 1차 구술

1. 구술자: 홍경태
2. 면담자: 강희영
3. 촬영자: 이대희
4. 구술일자: 2012년 5월 8일
5. 구술장소: 서울 마포구 노무현재단 대회의실
6. 구술분량: 07분 46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 후원회 운영과정에서 접한 정치인 노무현의 면모

면담자 : 구십삼(93)년도에 지금 대통령님 만났다고 하셨는데, 처음 만나셨을 때 기억나세요?

구술자 : 네. 구십삼(93)년도 시(10)월경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 제가 야구를 다시 할라고, 야구 코치를 할라고 그때 이야기 중에 있었는데. 어느 날 전화를 하셔가지고 좀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사무실이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 있었습니다. 지방자치실무연구소인데요. 그래서 저하고는 여섯시에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오십사(54)회 선배님들 하고는 여섯시 반에 약속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기다리고 있는데 선배들 오셔가지고 ‘우얀 일이나’ 해서 대통령이 좀 뵙자고 해서 왔다 이랬더만은 그때 다른 손님들 만나신다고 계속 사무실에서 뵙고는 같이 오십사(54)회 동문들하고 같이 저녁식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식사하시면서 전혀 말씀도 안하시고 계속 뭐 이야기하시다가 끝나기 한 십(10)분 정도 됐나요. 대통령께서 저하고 ‘같이 일을 하자, 나를 좀 도와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운동선수가 무슨 정치하고 관련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좀 머뭇머뭇하는 사이에 옆에 선배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당장 그래 결정할 수 있느냐고. 생각할 시간을 주라’ 이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날 헤어지고요. 그 다음날 대통령님께서 전화를 하셔 가지고, 왜 출근 안하시냐는 식으로 전화를 하셨어요. 저는 좀 황당하지요. 전 전혀 정리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 된 입장인데. 그래서 제가 삼(3)일 뒤에 뵙고 같이 일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날 뵙기는 처음 뵈었구요. 그 뒤에 알은(안) 일인데 동창회 그러니까

우리 부산상고, 그때는 부산상고입니다. 지금 개성고등학교로 개명이 되었지만 부산상고 재경동창회가 있습니다. 거기 총무부장으로 계시는 분하고 총무차장으로 계시는 분 두 분이 추천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뒤에. 대통령께서 실제로 국회의원이 되시고 난 뒤에 뿐만 아니고 원외 계실 적에도 부산상고 동문들이 사무실에 일했던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하고 같이 일하자 할 때는 조금 당황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가서 보니까 일단은 원외에 있고, 지방자치실무연구소라는 사무실을 꾸려가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한 거는 특히 우리 동문들에게 후원의 역할을 해달라는 이런 취지에서 같이 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문들 가교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을 한다고 했고. 가서는 어떻게 생각했나 카면 한 달에 만(10,000)원을 낼 수 있는 사람 만(10,000) 명을 모으겠다, 그런 생각 하에 후원회, 후원회에 역할을 한 거지요. 실제로 그 이기명¹⁾ 회장님이 후원회를 맡아서 했지만, 회원들 인원도 그때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가 있었고, 좀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 다음에 원외에 계시니까 사실적으로 지방자치실무연구소의 회원들이 회비를 내 가지고 꾸려갈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인 뒷받침이 많이 안됐지요. 그래서 우리 부산상고 동문들만 해도 삼천 한 오백(3,500)명 정도 있습니다. 그 역할을 저한테 거의 맡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가자마자 그 당시에 제가 노 대통령 밑에서 일을 하게 됐다 그래서 제 아는 주위에 있는 동문들부터 해가지고 처음 모아가지고 그 당시에 기억나는 거는 첫날 천이백(1,200)만원을 모은 걸로, 일단은 싸인을 하건 어쨌던 간에 첫 모임에서 그렇게 후원금 모으게 된 기억이 납니다. 제일 큰 행사가, 그때 후원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일(1)년에 한번 씩은 후원회 행사를 하거든요. 그때 행사 때 모금을 좀 많이 하고, 아니면 십시일반 모아주는 사람도 있고 통장으로 보내주는 사람도 있고 그 당시 또 지로가 처음 생겼던가, 지로로 입금시키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은 체계적으로 인제 갔습니다.

면담자 : 지금 후원회 행사 말씀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후원회 행사나 이런 거 있으세요?

구술자 : 예, 몇 가지 있는데. 우리가 힐튼호텔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1) 1962년 연속방송극 '평화스런 날의 작별'로 데뷔한 방송 작가로 초선의원 시절 노무현 의원 후원회장을 맡아 대통령 취임 때까지 활동하였다.

도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후원회 행사는 실질적으로 뭐 기획부터 기획파트에서 다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사람을 얼마나 많이 모을 수 있나,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느 정도 또 후원해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관건이지요. 그렇지만 원래 대통령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친구들이나 특히 동기들에게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하기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다보면 중소기업체의 명단을 가지고 직접 전화를 하셔야지 그쪽에서도 반응도 있고, 후원회 참석도 하시는데 그런 게 미약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수줍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게 금전적인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 남한테 부탁하는 걸 싫어했고, 힘들어 했습니다.

그 뒤에는 우리가 대통령 후보 때 부산 구덕체육관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²⁾ 그때는 대통령 후보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성대하게 했고요. 나머지는 뭐 사실적으로 우리가 후원회 하면서 걱정을 좀 많이 하지요. 좌석이 꼭 차느냐, 안 차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직접 의원님께서 전화를 하시라고 해도 잘 전화를 안 하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돈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부담스러워 하고. 후원회 끝나고 나면 제가 백(100)만원 이상 낸 사람은 고액자라고 해가지고 명단을 뽑아드렸어요. 고맙다고 전화 좀 드리라 해가지고. 근데 전화를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세 번까지 뽑아드린 적도 있는데, 안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사실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돈 부탁 이런 거 싫어하셨기 때문에 돈에 관련된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속스럽다 그럴까요? 거기다가 전화하시는 걸 좀 싫어하신 것 같아요.

■ 구술자 주요이력

1955. 부산 출생

1974. 부산상업고등학교 졸업

1974. - 1984. 실업야구 선수 및 한일은행 근무

1993. 지방자치실무연구소 근무

2) 2002년 12월 6일 부산 구덕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시지부 후원회를 말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부산상고 8년 후배로 고등학교 시절부터 야구선수로 동문들 사이에 많이 알려져 있었다. 재경동문회 선배들의 추천과 권유로 1993년 당시 원외 정치인 노무현 최고위원의 후원회 업무를 맡기 시작해 2002년 대통령선거에 이르기까지 역할이 이어졌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에는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으로도 근무했다.